

부품 · 소재산업의 對中 · 일 국제 경쟁력 강화 시급

산업은행, '부품 · 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부품 · 소재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부품 · 소재산업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작년 말 산업은행에 의해 발표되었다. 이 자료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한 · 중 · 일 3개국의 국제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일본은 부품 · 소재 강국의 지위를 고수하고 있고, 중국은 국제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부 품 · 소 재 산 업 다 각 적 인 문 제 점 드 러 나

국내의 부품 · 소재산업은 전체 제조업에서 사업체수, 생산액, 수출액의 30%이상을 담당하는 중요산업이다. 2002년 말 현재, 국내 부품 · 부품소재산업중 중소기업의 사업체는 전체 99.1%를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생산액은 55.5%에 불과해 영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수준 역시 2004년 10월을 기준으로 선진국의 78.8%수준으로 낮게 나타났고, 對일본 무역역조현상도 1999년 97억달러에서 2003년 139억달러로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전자부품의 수출비중이 33.9%에 이르고 국가별로도 중국, 미국, 일본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45.5%에 이를만큼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지 표 를 통 해 나 타 난 한 · 중 · 일 의 국 제 경 쟁 력

수출입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무역특화지수를 기준으로 국가간 경쟁력을 살펴볼 때, 2003년 우리나라의 부품 · 소재산업 무역특화지수는 3.9로 소폭의 무역흑자에 있는 반면, 중국(△19.5)은 무역적자, 일본(37.8)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1999~2003년 동안 한 · 일간 국제 경쟁력은 다소 축소된 반면, 중국은 다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밀기기부품, 비금속광물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하락했지만 중국은 4.9%p 상승하여 중국의 부품 · 소재산업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쟁관계를 나타내는 수출경합지수로 살펴보면, 한 · 중간의 수출경합지수는 크게 상승하여 경쟁이 심화된 반면, 한 · 일간에는 소폭 상승에 그쳤다.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총 12개 부품·소재업종 중 1차금속, 전자부품 등 6개 업종에서 중국에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섬유, 일반기계부품 등 4개 업종은 경합관계, 정밀기기부품 등 2개 업종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과는 컴퓨터·사무기기부품만 경쟁우위에 있고 섬유, 고무·플라스틱 등 3개 업종은 경합상태에 있으며 정밀기기부품 등 8개 업종에서는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부품, 섬유, 고무·플라스틱 등은 對 중·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주요업종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3개 업종의 종업원수, 생산액 및 수출액이 부품·소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전자부품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부문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이라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 품 · 소 재 산 업 의 국 제 경 쟁 력 제 고 방 안

이런 상황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對 중·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은행은 다음의 다섯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 및 차세대 부품·소재개발

국내 부품·소재산업은 완제품 대비 국제경쟁력이 열위에 있어 제조업 전체의 무역흑자의 기반 공고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소싱이 가능한 기존 핵심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성과 기술파급 효과가 큰 차세대 수출 유망 부품·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부품·소재의 글로벌소싱에 대응한 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

국내 10대 전자부품기업의 매출규모는 일본의 1/8수준에 불과하다. 부품·소재산업의 기업규모가 영세하여 자금조달, 전문생산체제구축, 해외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핵심제품 등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부품·소재기업을 위한 투자펀드 확대, 제조전문회사의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전문화가 필요하다.

▶중국 부품·소재산업의 성장에 대응한 제품의 차별화·고급화

중국의 추격은 중국내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에 힘입은 저가 범용 부품·소재의 수출 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더욱 빠르게 성장해 한·중간의 경합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제품과의 차별화·고급화 등을 위해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개발 등을 통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對중·일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전자부품, 섬유, 고무·플라스틱 등은 對 중·일 국제 경쟁력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업종이다. 전자부품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선정돼 그 심각성이 더하며, 이에 따라 취약부문인 설계와 원천기술의 확보를 통해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적극 발굴·육성해야 하며, 섬유 및 고무·플라스틱의 경우 고가품 위주로 생산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수출구조 구축을 위한 수출품목과 시장의 다변화

2003년 전체 부품·소재수출중 상위 3대 품목의 비중이 61.4%에 이르고 최근 4년간 미국, 중국, 일본시장에 대한 부품·소재수출비중이 상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 편중은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다변화를 위해 미래 주력 수출품목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브릭스나 동유럽 등으로 수출확대 및 FTA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